

# 協會記事

## 庶政刷新·物資節約 教育 및 第一回 事務局長 會議

지난 2월 18일 午後 1時 徐載寬事務總長 主宰로 開催된 庶政刷新·物資節約 教育 및 第1回 全国各市道支部 事務局長 會議를 통해 本會 李圭福會長은 다음과 같은 內容의 訓示를 하였다.

現下 國家가 屢해 있는 時局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어려운 고비임으로 우리 1600全體會員은 勿論 全 任職員은 國家安保의 次元에서 總和를 이룩해야 겠으며

이는 國家施策에 副應하는 姿勢로서 特히 여기 자리한 本會 尖兵役인 各部署 部長 및 全国事務局長들은 추호도 優柔不斷해서는 안되겠다고 前提

團合된 姿勢만이 이時局을 克服·所期의 目的을 達成 하리라 믿는다고 強調하였다.

또한 1600全體會員의 權益과 總和는 여러분들의 一絲 不亂한 業務遂行만이 그 民결음이요 捷徑이라고 力說하고 다음 4個項을 指示하였다.

1. 本會 모든 業務指示 事項은 至上命令으로 받아 지체 없이 履行하라.
2. 모든 示達된 業務를 各支部事務局長은 最善을 다해 熟知運營하라.
3. 事務局長 自覺下의 正確히 職員을 管理 敎導하라.
4. 各市·道支部에서 發生하는 모든事項은 支部長과 協議 本會에 지체없이 報告處理하라.

이어 徐載寬 事務總長은 다음要旨의 指示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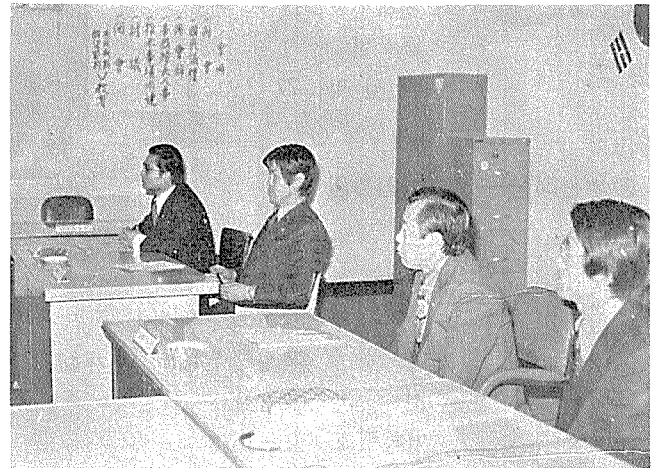
우리는 技術과 藝術의 複合体的 構成이므로 자칫하면 排他的으로 모든 것이 흐르기 쉬운 아쉬움이 恒常 內在하고 있다고 前提 이와같은 構成員인 會員에게는 妥協의 이요 創意的인 役軍으로서 發展團合할 수 있도록 그뒤에서 여러분들은 粉骨碎身해야될 줄 믿으며 다시말해서 1600余會員의 民결음이 되어야겠다고 말하였다.

이와같이 맡겨진 使命을 完遂키 為해서는 非科學的인 論理나 漠然한 姿勢를 止揚하고 科學的이고 研究하는 姿勢로서 業務에 臨해 즐거움을 當付하였고 뚜렷한 目標를 設定 計劃을 樹立 審査分析을 통해서 事業을 펼쳐나가도록 當付

特히 庶政刷新 및 物資節約은 하루아침에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우리 周邊의 새마음 精神을 欸吹시키고 生活化 시키는데 그 根本目的이 있다고 強調 汎國民的으로 展開되고 있는 이 새마음 物資節約 運動을 不斷히 펼쳐나갈 것을 強力히 指示하였다.



①



②



③

〈사진 설명〉

- ① 동아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본협회 이 규복 회장
- ② 제1회 전국 사무국장 회의에서 훈시를 하는 본협회 회장
- ③ 사무국장 회의에서 "서정쇄신·물자절약 교육 광경